

이탈리아 노사의 섬유산업 공동화 대책과 시사점

배 규 식*

이 글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우리의 산업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섬유산업 공동화에 대해 노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산업공동화에 직면한 우리의 노사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탈리아의 섬유·의류산업에 대한 소개

이탈리아의 섬유·의류 및 패션산업은 제3의 이탈리아(The Third Italy)로 불리는 이탈리아 북중부 지역의 산업지역(Industrial districts)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긴밀한 산업연계망(networks)을 구축하여 세계 섬유 및 패션산업에서 품질과 디자인을 선도해 나가며 경쟁력을 구축해 왔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이탈리아 섬유, 의류, 패션, 가구, 피혁, 신발, 농업기계, 도자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기존의 미국식의 대량생산방식(mass production), 일

본의 린생산방식(lean production), 독일의 다변화된 질적 생산방식(Diversified quality production)과 대별되는 독특한 생산방식을 구축했는데 이를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방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유연적 전문화 방식에서는 소규모로 전문화된 회사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발전이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에 상당히 의존하는 생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탈리아 섬유·의류 그리고 관련산업은 이탈리아 제조업 기업들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산업이다. 이들 산업에 고용된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981,341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이 555,000명이나 된다. 섬유·의류 산업에서 여성들의 높은 비율은 여성 고용비율이 40% 미만인 다른 제조업들과 섬유·의류산업을 구분하는 특징이다. 여성들은 의류제조(clothes manufacturing)부문에서 특히 높은 비율(76%)을 차지하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baekiusik@kli.re.kr).

〈표 1〉 이탈리아 섬유·의류산업의 산업지역(industrial districts)

	섬유업(upstream industry textile)	니트의류업(downstream industry knitwear)	의류업(downstream industry clothing)
북부	Biella-Cossato (Piedmont) Schio (Veneto)	Ostiglia (Lombardy)	Palazoolo sull' Oglio (Lombardy)
중북부	Prato(Tuscany)	Carpì(Emilia Romagna)	S Benedetto Tronto(Marche) Senigallia(Marche)
중남부	Ascoli, Piceno-Val Vibrata(Abruzzo)	Giulianova (Abruzzo)	S Marco Cavoti (Campania) Putignano(Pulia)

자료 : Paniccia(2002). Table 2.4에서 재구성.

〈표 2〉 비엘라 지역의 산업별 고용(1976~1986)

	섬유의류산업		기계산업		전체	
	근로자수	비율	근로자수	비율	근로자수	비율
1976	33,086	73.4	5,828	12.9	45,080	100
1980	32,983	71.9	6,732	14.7	45,846	100
1986	30,109	71.3	6,212	14.7	42,208	100

자료 : Locke(1995: 161). Table 5-4.

이탈리아의 섬유업과 의류업이 지역별로 집중되어 있는 산업지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섬유업과 의류업의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크가 조밀하게 연계된 산업지역은 이탈리아의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산업지역 가운데 하나의 지역을 예로 들어 보면, 비엘라(Biella) 지역은 밀라노 북서쪽으로 1시간 운전거리에 있는 곳으로 양모섬유 제조의 세계적 중심지이다. 비엘라의 인구는 19만명이고 1,300개 회사가 양모/섬유산업에 관련되어 있으며, 200개의 회사는 섬유기계

생산회사들이다. 이 지역에서 양모/섬유산업에 고용된 인력은 28,000명으로 전국 실업률 12% 비해 이 지역의 실업률은 5%로 낮은 편이며 이 지역의 1인당 평균 소득수준도 전국 평균보다 30% 가량 높다.

비엘라 지역의 중심부에서는 훈련·교육 - 튜린 전문대학, 응용연구 - 국립연구센터 출장소, 기술이전 - 국가기술산업연구소, 마케팅 - 국제양모 사무국의 이탈리아 본부, 표준 - 냉방양모의 중량인증기구 등 양모산업과 관련된 중요 조직들이 소재해 있다.

이곳에서는 Zegna와 Fila 같은 브랜드 이



름은 보편화되어 있고 밀라노와 빠리 등의 패션하우스를 위한 섬유의 주요 공급처이다. 비엘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방섬유 제품의 연간 생산고는 약 80억달러이며 호주가 이 지역 양모공장에서 사용되는 양모의 40%를 공급한다. 수많은 완성된 제품은 소매가격으로 1,500달러 하는 캐시미어코트이다. 이곳은 밀라노와 빠리를 중심으로 고객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디자인 등 섬유와 의류 양식의 혁신이 시장 흐름에 발맞추어 시장에서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

2. 이탈리아 섬유·의류산업의 위기

1990년대 이래 국제 섬유시장의 개방과 경쟁의 격화로 이탈리아의 섬유·의류 그리고 패션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아 왔다. 1999년경부터 섬유와 의류산업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섬유산업 회사들의 연합체 조직(Systema Moda Italia)에 따르면, 1999년 동안 이탈리아 섬유산업의 판매고는 1998년 보다 1.5% 감소했고 수출은 5.1% 줄어들었으며 수입은 7%나 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극동지역 특히 중국에서 저가품들의 대량생산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이들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섬유·의류산업이 위기의 상황에 이를 정도로 해를 입었다. 그 외에도 국내 및 해외에서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섬유 및 의류상품에 대한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 이 산업에 어려움을 주는 또 다

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가 있지만 좀 낙관적으로 추정을 해도 매년 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탈리아 섬유, 의류산업에서 총매출액 감소폭은 46억유로나 되었고 일자리도 4만개가 줄어들었다.

3. 섬유산업의 공동화에 대응하는 노사의 공동전략

산업공동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섬유와 의류회사들은 한편으로는 저가 저품질 제품생산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생산활동(방직, 방직)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전략과 고부가가치 생산활동은 이탈리아에 유지하면서 경쟁력의 근본이 되는 혁신과 고품질을 위해 사용되는 섬유와 디자인 환경에 대한 존중,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하는 로고와 마크 그리고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그리고 고품질 전략으로 이탈리아 섬유와 의류회사들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생산과정에 관한 상당한 혁신능력이 요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에게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연성이 핵심 요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섬유산업의 노사파트너들은 섬유산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정책과 전략을 세웠다. 우선 이탈리아 섬유산업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공동



으로 그리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가 하면, 다음으로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일정한 산업정책을 요구하고, 그 다음으로 노사 공동으로 유럽연합에 대한 일정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섬유산업의 새로운 전국적 단체협약

1) 2000년 단체협약 - 노동시간 유연화

이탈리아 섬유회사들은 노동시간 유연성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즉 생산을 수요의 계절적 변화에 맞출 수 있게 하고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이탈리아에서는 단체교섭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2000년 3월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노동시간에 관해 혁신적인 조항을 담게 되었다. 노동시간은행(hours bank - 노동시간 계정제 working time account)의 도입과 회사 전체 노동자의 8%까지 시간제 노동의 사용 증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연한 노동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시간의 유연성은 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섬유와 의류회사들에게 있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섬유산업에서 단체협약상 주간 기본노동시간은 40시간으로 1일 8시간씩 5일간 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단체협약은 연간 계획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는 노동시간 스케줄을 다

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더불어 소위 시기 적절한 유연성(timely flexibility)을 도입했다. 수요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을 때는 사용자들은 제한된 기간 동안 단체협약상에 규정되어 있는 정상적인 주간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때는 사용자는 기업수준의 근로자대표기구(RSU)에 5일 전에 알리고 노동시간을 바꿀 수 있다. 정상적인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1%의 할증률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000년 단체협약의 다른 주요한 변화는 노동시간 은행제의 도입이다. 모든 노동자는 1년에 개인(노동시간) 계좌에 3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할 수 있고 여기에 이체는 폐지된 과거의 공휴일에 대해 노동자들이 쉼 자격을 가진 4일의 휴가가 보태질 수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개인 계좌에 축적된 노동시간은 추가적 휴가시간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시간제 노동자의 사용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고무되고 있는데 시간제 노동자의 사용빈도는 정규직 노동자의 8%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2) 2004년 단체협약 - 2개의 노사공동기구 구성

2004년 4월 65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섬유와 의류산업에서 전국적인 단체협약이 전국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CGIL(이탈리아 노동자총동맹 - 구 공산당계), CISL(이탈리아 노동자조합동맹 - 기독교민주당 성향), UIL(이탈



리아 노동자 조합 - 사회당 성향)과 섬유산업의 사용자 조직들 사이에 6개월간의 협상 끝에 체결되었다. 그 협약은 ① 2년에 걸쳐서 월평균 87유로의 임금인상 ② 새로운 노사 공동기구의 수립 ③ 노동자들의 정보권과 협의권의 강화 ④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사용하는 규칙 ⑤ 산전산후 휴가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 단체협약의 임금부분은 2004년 초부터 소급적용하여 2005년 말까지 유효하며, 임금을 제외한 부분은 2004년 초부터 2007년 말까지 4년간 유효하다.

이 단체협약에서 혁신적 변화는 이 협약이 두 개의 새로운 노사공동기구를 만들어 섬유산업의 노사관계시스템을 보다 참여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다.

- 섬유산업 노사공동의 전국관측소(observatory) 설립 - 3개 노조의 대표 6명과 사용자 조직들을 대표하는 6명으로 구성되는 전략운영위원회가 관측소 활동을 결정한다. 이 관측소에서는 섬유산업의 노사에 단체교섭을 하는데 필요한 섬유산업에 관한 데이터와 경제, 생산시나리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관측소의 활동은 지역(region)수준과 지방(local)수준에

서 상호 결합될 수 있다.

- 섬유산업의 노사공동 전국훈련기구의 설립 - 전국, 지방 그리고 기업수준의 훈련 프로젝트를 정의하며, 지역과 지방수준에서 노사공동의 훈련기구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노사공동 훈련기구는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한 특수한 훈련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탈리아 섬유산업의 새로운 단체협약은 정보권과 협의권의 확장을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들에서 노동조합의 사업장 대표는 회사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다. 기업수준의 근로자대표기구는 매년 기업의 생산적 분권화(productive decentralization)에 관한 정보, 특히 해외이전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섬유와 의류산업이 매우 세계화된 점을 고려하면 정보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협약은 2003년 비아기(Marco Biagi)¹⁾ 노동시장개혁법의 제측면들을 적용하여 다양한 고용형태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정의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다루고

1) 마르코 비아기(Marco Biagi) 교수는 이탈리아의 저명한 노동법, 노동경제, 노사관계학자로 중도우파인 이탈리아의 현 벨루스코니 수상을 도와 이탈리아 노동법을 수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고용과 노동시장에 관한 법의 입안을 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노동계에서 정치적·조직적 분열을 뛰어넘어 반대하였는데 오랫동안 테러 활동을 중단했던 이탈리아의 극좌파인 붉은 여단이 2002년 3월 19일 비아기 교수를 살해하여 이탈리아 정국에 충격을 주었다. 이때 입안된 고용과 노동시장법을 비아기 노동시장개혁법이라고 한다.



있다.

- 기간제 계약의 절차와 조건: 기간제 계약이 12일(작업한 날짜로)을 넘을 경우 서면계약을 해야 한다. 7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0%, 7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섬유와 의류산업의 보완적 연금에 참여할 수 있다.
- 직업수준에서 조직되는 도제와 훈련을 위한 조건과 절차
- 기간제 파견노동자의 사용: 비아기(Biagi) 법이 도입한 새로운 제도로 12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파견노동으로 채용된 노동자의 평균수가 회사에서 정규직 계약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8%를 초과할 수 없다. 혹은 임시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파견노동자의 숫자가 회사의 기간제 노동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 과거에 작업/훈련계약으로 알려진 통합계약의 사용: 통합계약은 29세 미만의 젊은 노동자들을 훈련하고 장기실업자, 장애인, 고실업률 지역에 사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는데 사용된다.

- 시간제 노동의 촉진: 시간제 노동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덜 엄격하게 되었고 보다 유연해졌다. 시간제 노동자는 기업 단위로 전체 정규 노동자의 8%를 초과할 수 없다.
- 일자리 나누기와 telework를 위한 조건과 절차
- 이미 유럽과 이탈리아의 다른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섬유산업에서 직무분류시스템의 재정의 그리고 사무직과 육체노동자간의 5개월의 100% 유급 산전산후 휴가기간의 통일

나. 노사 공동의 대정부 산업정책 요구

섬유산업에서 대표적 노동조합인 CGIL(구 공산당계 노조), CISL 그리고 UIL 등 3개 노동조합(이탈리아 노조는 전국조직임)과 섬유산업의 3개 사용자단체들이 최근 공동으로 2005년 국가예산법에 섬유와 의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시켜 주고 섬유와 의류회사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노사 공동제안은 2004. 10. 21. 노사가 서명을 한“산업정책에 관한 노사공동문서”에 요약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이탈리아 섬유산업의 위기 배후에는 세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원인은 ① 이탈리아 국내 섬유제품 가격의 하락 ② 유로와 달러간 환율의 불



균형한 변화 ③ 새로 산업화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생산해내는 완제품 혹은 반제품들의 경쟁력이다. 더구나 섬유산업 국제시장의 자유화가 일단 완료되면,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경쟁은 2005년 초에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노사파트너들은 정부에 4가지 유형의 개입을 제안하고 있다.

1) 이탈리아제 상표에 대한 지원

① 생산물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라벨과 원산지 추적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강제적 도입, ② 모조상품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와 현재 의회 관련 위원회가 검토중인 특허권법의 승인, ③ 가짜제품, 사회적 덤핑 그리고 환경 침해를 막기 위한 캠페인의 촉진, ④ 관련 당국의 국정통제와 세관검사 강화

2) 중소기업 중심의 섬유산업 현실을 고려한 연구와 혁신에 유리한 산업정책

① 국제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택적인 국가 개입, ② 자본 증식을 위해 신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유회사들의 성장을 고무하고 회사들간 통합이나 회사 집단들을 키우는 인센티브 제공

3) 노동비용과 해외이전에 대한 정책

① 저임금국으로의 이전은 많은 공장의 폐

쇄와 그에 따른 일자리 손실을 의미하므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비용의 감소 방안을 제안, ② 신제품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생산활동에 부과하는 지방세 감축,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감축, ③ 해외이전을 늦추기 위해 정부는 섬유회사들 가운데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는 동안 이탈리아에서 생산과 고용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 회사들에게만 공적 지원 제공

4) 노동, 고용, 훈련에 관한 섬유산업의 노사 대표들의 주요 제안

① 도제들의 훈련내용의 정의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가속화, ② 섬유산업의 전국적인 노사공동기구가 훈련을 위해 수행한 직업 훈련 수요조사의 결과를 관련당국이 사용토록 하는 것, ③ 회사들이 직업훈련을 위해 부담해 오던 비용에 부과된 세금을 없애는 것, ④ 훈련활동에 사용된 작업시간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감면제의 도입, ⑤ 노동시간의 재조정,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높이기 위한 조치와 같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이와 더불어 섬유산업의 노사파트너들은 섬유산업에서의 위기로 인해 타격을 받은 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개입을 제안했다. 이들 파트너들은 임금보장기금이라



는 사회적 충격흡수장치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구조조정으로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이 임금보장기금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간에 걸쳐서 52주에서 104주까지 - 이미 자동차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 연장하는 방안을 섬유회사들에게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 노사파트너들은 정부에 2005년도 예산법에 섬유와 의류산업의 회사들에 의한 임금보장기금의 사용에 관한 현재의 특별규정을 확대해 주도록 요청했다.

다. 노사 공동의 유럽연합에 대한 정책요구

2004년 1월 이탈리아 섬유와 의류산업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조직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공동의 요구사항을 제출했는데 그 안에는 점증하는 경쟁을 맞아 섬유·의류산업의 미래를 확실하게 할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었다.

섬유와 의류산업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조직들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하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물의 원산지를 소비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섬유와 의류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전략을 채택했다. 이들 노사파트너들은 일련의 공동요구를 만들어 유럽연합 당국이 유럽의 섬유와 의류산업에서 경쟁력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했다. 이 문서들은 2004. 1. 23. 유럽 경제사회위원회의 청문회에 발표되었다.

<이탈리아 노사 파트너의 주요한 공동 요구사항>

- 제3국 시장에 대한 상호 접근성: 극동지역 생산물에 대한 저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이들 국가(가령 인도)들에게 유럽 수출품에 대한 그들의 관세를 낮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관세 감축은 소규모 제조업을 가진 국가 혹은 저개발국에게만 제한되어야 한다.
- 제조국 라벨의 도입: 현재 '유럽연합 제조(Made in EU)'라는 라벨은 제조국 이름으로 바뀌어야 한다(Made in Italy/EU). 이러한 제조국 라벨은 고객들에게 투명성(제품의 원산국에 관한), 균등한 정보(이런 류의 정보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음), 가격공정성(제품의 내재적 품질과 관련하여) 그리고 보건 안전(제품과 관련된 피부질환에서 안전)을 보증할 것이다. 이리하여 라벨은 제품의 원산지 그리고 제품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반제품의 원산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 모조제품: 점차 커져가는 모조제품의 문제를 다스리고 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모조제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 연구와 혁신에 대한 지원: 유럽 섬유산업의 주요 특징인 창의성의 발전은 물론 기술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연구개발에 관한 현재 유럽연합의 규제는 수정되어 기술혁신과 양식상의 질적



인 혁신(stylistic qualitative innovation)을 동등시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 유럽연합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무역협상에서 사회적 조항(social clause)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사회적 덤핑'에 맞서 싸워야 하며 개발도상국에서 환경적으로 최선의 관행을 촉진해야 한다. 국제환경규제와 국제노동기구 기준은 제품 라벨에 포함될 수 있는 인증절차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 지역정책: 유럽연합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회원국들 뿐만 아니라 섬유와 의류회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도 분배되어야 한다.

4. 이탈리아 섬유산업 노사의 산업공동화 노력이 주는 함의

우리 제조업 공동화의 맥락은 매우 다르지만 산업공동화의 위기에 빠진 이탈리아 섬유산업에서 노사가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는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구나 이탈리아의 노동정치적 구도가 우리의 노동정치적 구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탈리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정치적 지형을 반영하여 노동운동이 크게 세 갈래(과거 공산당 계열의 CGIL과 온건한 기독교당 계열의 CISL 그리고 사회당 계열의 UIL)로 정치적·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서로 경쟁하고 대

립해 왔다. 2002~2003년 비아기(Biagi) 노동시장법안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세 노조가 반대했으나 정부에서 일정한 양보를 하자 CISL과 UIL은 찬성으로 돌아선 반면, CGIL은 반대하였으며 노사정 타협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여왔다. 이는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입장차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섬유산업의 공동화 위기에 대해서 과거 공산당 계열인 CGIL까지 포함된 노조와 사용자측이 공동으로 산업의 요구와 고용 보장을 조화시킨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탈리아 정부와 유럽연합에 대한 산업정책적 요구를 제출한 것은 우리 노조의 산업공동화 저지 주장이나 우리 제조업 사용자들의 고민없는 중국으로의 공장이전 정책과 대조적이다. 이탈리아 섬유산업의 노사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겨냥하여 한편으로는 단체협약을 통해 '규제된 유연성(regulated flexibility)'과 노사 공동기구 설립을 통해 훈련이라는 공공재 공급, 섬유산업의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정보파악과 대안정책 마련을 자율적으로 추구해 왔다. 노사가 섬유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단체협약 내용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노사는 정부와 유럽연합에 실제로 실현가능한 구체적·정책적 제안과 요구를 제시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탈리아 섬유산업의 노사가 이와 같이 산업공동화에 대해 한편으로는 협력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열심인 것은 단순히 산업공동화의 위기의 심각성이나 이탈리아 섬유산업이 주로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탈리아 노사는 전국수준과 산업수준에서 그동안 싸우면서도 다양한 사회적 협약과 산업별 협약을 통해 고용관계를 규율해 온 전통이 있다. 따라서 전국적 수준, 산업별 수준에서의 노사대화와 교섭제도 관행은 위기에 상호 협력과 위기탈출을 위한 공동노력의 기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노사가 산별교섭과 산업별 협의의 경험이 없거나 일천하다. 우리 노조들은 산업별 노사협의를 노조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교섭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용자들은 산업별 노사협회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기업별 기회주의적 행위에 만족하는 단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노사가 산업별, 업종별 수준에서 산업공동화 대책, 산업고도화, 산업별 직업훈련제, 정부의 산업정책 참가, 일자리 유지와 창출방안 마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용관계 변화, 원하청 관계의 개선 등의 많은 노사협력과 정책과제를 눈앞에 두고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초 일자리 협약을 체결한 뒤로 전국의 22개 지역에서 유사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민주노총 하부 조직은 빠져 있고 지역적, 업종별, 산업별로 노사가 공동으로 협력의제, 정책요구 의제 등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기업수준에 머물거나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 우리 노사도 이탈리아 섬유산업의 노사가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것에서 보듯이 1~2년의 임금인상 몇%, 값싼 임금을 찾아 손쉽게 해외이전을 하는 관성이나 고민없는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적 선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그런 노력은 우선 산업별,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노사교섭이 아닌 노사 공동의 관심사와 우려에서 출발하여 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을 점차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 EIROnline -<http://www.eiro.eurofound.eu.int/>
- EIROnline(2000), *Collective agreement signed in textile sector.*
- EIROnline(2003), *Draft legislation on labour market reform approved.*
- EIROnline(2004), *Social Partners agree joint platform for the development of textile sector.*
- EIROnline(2004), *New national agreement signed for garment and textile sector.*
- EIROnline(2004), *Employers and unions make joint call for measure to assist textile sector.*
- Locke, Richard(1995), *Remaking the Italian Economy*(chapter 5),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ocke, Richard, M. and Lucio Baccaro (1999), *The Resurgence of Italian Unions*, *Pespectives on Work*: 18~22.
- Paniccia, Ivana(2002), *Industrial District: Evolution and Competitiveness in Italian Firms*, Cheltenham, UK: Edward Elgar.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UNIDO)(1999), *The Italian Experience of Industrial Districts.*